

내신기출 문항분석

[경기] 광남고등학교 국어 2016년 공통 1학년 2학기 기말족보

■ 문항별 분석 (객관식 30문항)

	문제타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난이도	기타
01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인물의 말하기 방식	2	돌다리
02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인물의 성격과 태도	2	돌다리
03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소재 및 배경	2	돌다리
04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서술상 특징	2	돌다리
05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서술상 특징	2	돌다리
06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화자의 정서와 태도	2	관동별곡
07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표현상 특징	2	관동별곡
08	객관식	문법	국어사	국어사	3	관동별곡
09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화자의 정서와 태도	2	관동별곡
10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작품 전개의 이해	2	관동별곡
11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3	관동별곡
12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시어와 시구의 의미	2	관동별곡
13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작품 비교 감상	3	관동별곡
14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표현상 특징	2	관동별곡
15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작품 전개의 이해	2	관동별곡
16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서술상 특징	2	봉산탈춤
17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3	봉산탈춤
18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서술상 특징	2	봉산탈춤
19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2	봉산탈춤
20	객관식	문학	산문 문학	인물의 말하기 방식	3	봉산탈춤
21	객관식	문법	국어사	국어사	2	향찰, 서동요
22	객관식	문법	국어사	국어사	2	훈민정음 제자원리, 훈...
23	객관식	문법	국어사	국어사	2	훈민정음 제자원리, 훈...
24	객관식	문법	국어사	국어사	2	훈민정음 제자원리, 훈...
25	객관식	문법	국어사	국어사	2	훈민정음 제자원리, 훈...
26	객관식	문법	국어사	국어사	2	훈민정음 제자원리, 훈...
27	객관식	문법	국어사	국어사	2	훈민정음 언해, 동명일...
28	객관식	문법	국어사	국어사	2	훈민정음 언해, 동명일...
29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표현상 특징	2	훈민정음 언해, 동명일...
30	객관식	문학	운문 문학	시어와 시구의 의미	2	훈민정음 언해, 동명일...

내신기출 출제경향 분석

[경기] 광남고등학교 국어 2016년 공통 1학년 2학기 기말족보

■ 출제경향 분석

01. 시험범위 : 국어2, 천재(박)

문학-고전시가: 관동별곡, 동명일기 / 현대소설: 돌다리 / 고전산문-전통극: 봉산탈춤
 문법-고전문법: 훈민정음 제자원리, 훈민정음 언해, 동명일기, 서동요

기타교재

02. 난이도별 문항 분포 - 문항수

하(1점)	
중(2점)	25문
상(3점)	5문
최상(4점)	

03. 문항별 유형 분석 - 출제비율

국어사	9문
운문 문학	11문
산문 문학	10문

04. 총평

[경기] 광남고등학교_국어_2016_학년1_2학기 기말고사는 교과서 내 지문을 바탕으로 전형적인 내신형 문항으로 출제되었으며 난이도는 쉬운 편입니다. 대부분의 문항 구조가 단순한 편이며, 모두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문학과 문법 영역에서 출제되었으며, 문학영역의 경우, 고전시가 한 작품, 현대소설 한 작품, 고전산문-전통극 한 작품이 각각 단일 지문으로 출제되었고, 하나의 작품 아래 다수의 문제가 출제된 점이 눈에 띕니다. 범위 내 작품을 꼼꼼하게 학습할 것이 요구됩니다.

고전문법에서 문법 이론과 관련도니 지문 및 고대국어~근대국어 범위 내 지문을 바탕으로 해당 시기의 문법적 특징이나 지문에 대한 정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크게 난이도 높은 문제는 없으나, 고전문법 특성상 문법 이론을 암기하고 이를 예문에 적용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며, 제시된 지문 아래 문학 문제가 일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범위 학습시 이에 유의하여 시험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기출 족보

고 1 국어



광남고(서울 기타) 2016 2학기 기말 국어

전년도 학교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엮은 족보로 실전 시험 대비가 가능한 족보

감수자: 정유연(yuyeon@eduzone.co.kr)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17-10-23

2) 제작자 : (주)교육지대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A)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나거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옅한 것, 옅 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 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놀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 이서 꺼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책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니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댕졌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중략>

㉢창첩은 입이 열어 버리었다. 손만 부뻗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분위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루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헌 욕심은 아닐 줄두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린 못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仁術)이라지 않니? 매살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

(B) “네가 가업을 이어 나가지 않는다군 탄하지 않겠다. 넌 너루서 발전할 길을 열었구, 그게 또 모리지배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活人)허는 인술이 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허니? 다만 삼사 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 논 전장을 남의 손에 내 맡기게 되는 게 저우 애석헌 심사가 없달 순 없구…….”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두 이제두 말했지만 너두 문서 쪽만 쥐구 서울 앓어 지주 노릇만 허게? 그따위 지주 허구 작인 틈에서 땅들만 얼마 골른지 아니? 안 된다. 팔테다. 나 죽을 임시엔 다 팔 테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헌테 팔 테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는 같은 건 한해만 부쳐 보구 죽어두 농군으로 태낳은 걸 한허지 않겠다

구 했다. 독시장발을 내논다구 해 보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드라두 집을 팔아 살려구 덤빌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임자 안 되구 누가 돼야 옳으냐?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 내겠니? 몇몇 해구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깊어 나가게 헐 테니 너두 땅값을랑 그렇게 받아 갈 줄 미리 알구 있거라. 그리구 네 모가 먼저 가면 내가 물을 거구,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모만은 내가 서울로 그때 데려가림. 난 샘말서 이렇게 야인(野人)으로나 죄 없는 밤을 먹다 야인인 채 물힐 걸 흡족히 여긴다.”

“…….”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 된 맘으루두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헌데두 그만 신념쯤 지켜 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어다구.”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데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주루루 흘리었다.

“너이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뇨,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진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그러나 ㉔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르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 놓은 ㉕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버리었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중략>

노인은 어두운 천정을 향해 쓴웃음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 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 틈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첫 굽로도, 가운데 굽로도, 끝에 굽로도 맑기만 한 소담한 물살이 우쭐우쭐 춤추며 빠져 내려갔다. 가운데 장으로 가 광 굴러 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꼬퍽이 있을 리 없다. 노인은 주루루 집으로 들어와 소금 접시와 낫 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저린 물을 한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의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물이 분수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궁굴러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허는 거다.'

㉔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진 하루라도 천리(天理)에 방심을 해선 안 되는 거다…….'

1. ㉑ ~ 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창섭은 아버지를 설득시키고자 한다.
- ② ㉒ : 창섭은 아버지의 반응에 당황하고 있다.
- ③ ㉓ :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애착을 알 수 있다.
- ④ ㉔ : 창섭은 아버지의 생각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 ⑤ ㉕ : 아버지는 자연의 이치를 알고 순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2. 밑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창섭'은 병원 확장을 위해 새로운 건물을 짓고자 하였다.
- ② '아버지'는 병원 확장이 창섭의 엉뚱한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였다.
- ③ '아버지'는 자신이 죽은 후에는 땅을 창섭에게 주지 않고자 하였다.
- ④ '창섭'은 돌다리가 무너진 것은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 ⑤ '창섭'은 부모님들과 같이 살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집이 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3. ㉔와 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는 창섭의 가치관을, ㉕는 아버지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소재이다.
- ② ㉔는 ㉕와 달리 쉽게 만들 수 있고 안정감을 주는 소재이다.
- ③ ㉕는 ㉔와 달리 전통적인 가치관을 대변하는 소재이다.
- ④ ㉕는 ㉔와 달리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다.
- ⑤ ㉕는 ㉔와 달리 가족의 추억이 담겨있는 소재이다.

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서술자가 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② (A)에서는 사건의 현장감이 느껴진다.
- ③ (A)에서 창섭은 의사가 된 이유가 부모님의 영향으로 가능했음을 밝히고 있다.
- ④ (B)는 서술자가 상황을 요약에서 보여주고 있다.
- ⑤ (B)에서 아버지는 창섭의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당부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서술하여 주인공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작중인물로 참여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사건 진행을 느리게 하고 있다.
- ④ 미완의 결말 구조를 통해 새로운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 ⑤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논평이 드러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江강湖호에 病병이 畧과 竹竹林림의 누엇더니,
關關東東 八팔百百 畧리니에 方方面面을 맞디시니,
어와 聖성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
延연秋秋 畧門문 드리드라 慶慶會會 南南門門 畧라보며,
下下直直 畧고 畧너나니 玉玉節節이 알피 셧다.
平평丘丘 畧驛역 畧을 畧라 黑黑水水 畧로 ㉡도라드니
㉢蟾蟾 畧江江강은 어디매오, 雉雉 畧岳岳악이 여기로다.
昭昭 畧陽陽 畧江江강 畧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孤孤 畧臣臣신 畧去去 畧國國에 畧白白 畧髮髮 畧발도 하도 ㉣할샤
東東 畧州州 畧雥雥 畧계오 새와 北北 畧寬寬 畧觀觀 畧亭亭의 울나흔니,
三三 畧角角 畧各各 畧山山 畧第第 畧一 畧峯峯 畧봉이 畧하마면 畧되리로다.
弓弓 畧王王 畧大대 畧闕闕 畧터희 畧烏烏 畧鵲鵲 畧작이 지지피니,
千千 畧천 畧古古 畧興興 畧亡亡 畧망을 아는다, ㉤물으는다.
淮淮 畧회 畧陽陽 畧네 일흠이 마초아 畧틀시고.
汲汲 畧급 畧長長 畧孺孺 畧유 畧風風 畧彩彩 畧치를 고타 아니 볼 ㉥게이고.

6. ㉠의 정서와 같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보다 더하겠는가 / (산이 비
록) 말하거나 웃거나 하지 않아도 나는 그저 좋아하노라.
- ②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모두 어리석구나 / 구름이
겹겹이 쌓여 험난하고 높은 이 산 중으로 어느 임이 나를
찾아오겠는가마는 /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와 바람부는 소
리에 혹시 임이 오는 소리가 아닌가 하노라.
- ③ 청산은 어찌하여 항상 푸르며 /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
낮으로 그칠 줄을 모르는가 / 우리도 그치지 말아서 오래
도록 높고 푸르게 살아가리라.
- ④ 쟁반 가운데를 놓인 일찍 익은 감(홍시)이 곱게도 보이는
구나 / 유자가 아니라 해도 품어 가지고 갈 마음이 있지만
/ 감을 품어가도 반가워 해 줄 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것이
서럽구나.
- ⑤ 봄산에 쌓인 눈을 녹인 바람이 잠시 불고나서 간 데 없구
나 / 잠깐 동안 빌려다가 내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
귀 밑의 해묵은 서리를 녹여 볼까 하노라.

7.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유를 통해 연군지정(연군지정)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중국의 지명을 인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생략되는 장면을 통해 속도감 있게 글을 전개하고 있다.
- ④ 3음보 율격을 통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강, 산 이름을 통해 여행했던 고을을 알 수 있다.

8. <보기>를 통해 ㉠ ~ ㉥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언어도 마치 생명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 생겨나고 끊임없이 변하며, 어느 순간 없어지기도 한다. 지금이 순간에도 우리도 모르게 언어는 계속 변하고 새롭게 태어나며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관동별곡 역시 언어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① ㉠은 이어지기 방식이 사용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군.
- ② ㉡는 한자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군.
- ③ ㉢의 '~르샤'는 현대어로 바꾸면 '~구나'로 해석할 수 있

군.

- ④ ㉔는 의문형이 사용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군.
- ⑤ ㉔는 평서형이 사용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百嶽川천洞동 거터 두고 萬만瀑폭洞동 드러가니,
 ㉑銀은 ㄱ탄 무지개, 玉옥 ㄱ탄 ㉒龍룡의 초리,
 셋들며 썸는 소리 十십리리의 즈자시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金金剛강臺터 밧 우層층의 仙仙鶴학이 샷기 치니,
 春춘風풍 玉玉笛덕聲聲의 첫즈음 썸뚝든디,
 ㉓縹縹衣의 玄玄裳裳이 半半空공의 소소 쓰니,
 ㉔西서湖호 넷 主主人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나)
 小小香香爐爐 大대香香爐爐 눈 아래 구버보고,
 正正陽陽寺寺 眞眞歇歇臺臺 고터 올라 안즌마리,
 ㉕廬廬녀山山 眞眞面면目目이 여기야 다 뵈는다.
 어와, 造造化化翁翁이 현스토 현스홀샤.
 늘거든 씨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芙芙蓉蓉을 고жат는 듯, 白白玉玉을 못것는 듯,
 東東溟溟을 박츠는 듯, 北北極극을 괴왓는 듯.
 늣홀시고 望望高高臺臺 외로올샤 穴穴望望峰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千千萬萬劫劫 디나드록 구뵐 줄 모르는다
 어와 너여이고, 너 트니 쏘 잇는가.

(다)
 開開心心臺臺 고터 올라 衆衆香香城城 바라보며,
 ㉖萬萬二이千千峰봉을 歷歷歷歷히 혀여히니,
 峰봉마다 밧쳐 잇고 窅窅마다 서린 괴운,
 뵈거든 조터 마나, 조커든 뵈디 마나.
 더 괴운 호터 내야 人인傑傑를 문들고자.

形形容용도 그지업고 體體勢세도 하도 할샤.
 天天地地 삼기실 제 自自然연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有有情경도 有有情경홀샤.
 毗毗廬廬로峰봉 上上上上頭頭의 올라 보니 ㉑ ㄱ ㄴ신고.
 東東山山 泰泰山山이 어늣야 늣뚝던고.
 魯魯國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넘거나 넘은 天天下하 엇제하야 적뚝 밧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호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호거니 ㄴ려가미 ㄱ이홀가.

(라)
 圓圓通通골 ㄱ는 길로 獅獅子子峰봉을 츠자가니
 그 알퐁 너러바회 化化龍룡되 되어세라
 ㉗千千年년 老老龍룡이 구빅구빅 서려 이셔
 晝晝夜夜의 흘너 내여 滄滄海海에 니어시니
 風風雲雲을 언제 어더 三三日日雨雨를 디런는다
 陰陰崖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磨磨訶訶衍衍妙묘吉길祥祥 雁雁門門문재 너머 디여,
 외나모 써근 드리 佛佛頂頂臺臺 올라호니,
 千千尋尋心心絶絶壁벽을 半半空공에 세여 두고,
 銀銀河河水水 한 구빅을 촌촌이 버혀 내여,
 실ㄱ티 플터이셔 ㄱ티 거러시니,
 圖圖經經 열두 구빅, 내 보매는 여러히라.
 ㉘李李謫謫仙仙 이제 이셔 고터 의논호게 되면,
 ㉙廬廬녀山山이 여기도곤 ㄴ단 말 못호려니.

(마)
 山山中中을 ㄱ양 보라 東東海海히로 가자스라.
 籃籃輿輿여 緩緩完完보호야 山山映映樓樓의 올라호니
 玲玲瓏瓏 碧碧溪溪와 數數聲聲 啼啼鳥鳥도는 離離別別을
 怨怨원호는 듯,
 旌旌旗旗를 썰티니 五五色色이 넘노는 듯,
 鼓鼓角角각을 셋부니 海海雲雲이 다 짓는 듯.
 鳴鳴沙沙사길 니근 물이 ㉚醉醉仙仙을 빗기 시러,
 바다홀 것터 두고 海海棠棠花花화로 드러가니,

白鶴鷗구야 늑디 마라 네 버딘 줄 었디 아는.

9. 윗글의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사물을 통해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특정 공간에 오르며 공자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 ③ 공간의 변화에 따라 화자의 내면 심리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④ 변화 무쌍한 산봉우리를 만든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세계에 대한 인식을 대상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10.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감정을 후렴구에 반복하여 주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탄식과 후회의 어조를 교차하여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처음과 끝을 유사한 내용으로 대응시켜 시상 전개에 운율감과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명령적 어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⑤ 거쳐 온 곳을 단순하게 열거하면서 여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관찰사의 소임을 맡게 된 작가는 '관동별곡'을 통해 아름다운 금강산의 자연 풍경에 의탁하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서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사대부로서 갖는 현실 정치에 대한 참여 의지를 형상화하며 관찰사로서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仙仙鶴학'을 통해 화자는 위정자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의 '眞眞歇憩臺臺'에서 봉우리들의 다양한 모습을 역동적으로 그려내며 화자의 내면에 일어나는 감동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의 '개심대'에서 만이천봉의 깨끗한 기운을 모아 인재를 만들고 싶어하는 화자에게서 현실 정치를 걱정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 ④ (라)의 '화룡소'에서 삼일우를 바라보는 화자에게서 굶주린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관찰사로서의 정치적 포부를 발견할 수 있다.
- ⑤ (마)의 '山山映映樓樓'에서 화자는 금강산을 떠나기 아쉬워하는 마음을 자연 풍경에 의탁하여 표현하고 있다.

12. ㉠ ~ ㉤ 중 의미하는 바가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天巖根근을 못내 보와 望望洋양亭亭 울은말이
 바다 맞근 하늘이니 하늘 맞근 므서신고
 ㉠갓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불거니 썸거니 어즈리이 구는디고
 銀은山산을 것거 내여 六육습합의 느리는 듯
 五오月월 長당天巖의 白백雪설은 므스 일고
 저근덧 밤이 드러 風풍浪浪이 定定흔거늘
 扶부桑상 咫지尺척의 明明月월을 기다리니
 瑞서光광 千천丈丈이 비는 듯 숨는고야
 珠珠簾렴을 고터 것고 玉玉階階를 다시 쓸며
 啓계明明星星 듯도록 곳초 안자 브라보니
 ㉡白백蓮蓮花화 흔 가지를 뉘라셔 보내신고
 일이 도흔 世세계계 늑대되 다 비고져
 流流靄하酒酒 ㅁ득 부어 들드려 무론 말이
 英英雄웅은 어디 가며, 四스仙仙은 ㉢뉘러니
 아미나 맛나 보아 넷 ㉣기별 못자 ㅎ니
 仙仙山山 東東海海히에 갈 길히 머도 멀샤
 松송根근을 베여 누어 ㅍ뜸을 얼꺃트 드니
 ㅍ매 ㅎ 사람이 날드려 날온 말이
 ㉤그덕를 내 모르랴 上上界界에 眞眞仙仙이라
 黃황庭庭經經 一일字字를 었디 그릇 ㄴ겨 두고
 人人間간의 내려와셔 우리를 쫓오는다

저근덧 가지 마오. 이 술 혼 잔 머거 보오
 北북斗두星성 기우려 滄창海히水수 부어 내어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㉔和화風풍이 習습習습호야 兩兩腋익을 추혀드니
 九구萬만리리 長당空공에 저기면 놀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四四海히에 고로 논화
 億億萬만蒼창生싱을 다 醉취케 텡근 後후의
 그제야 고터 맛나 쏘 혼 잔 흥갓고야
 말 디자 鶴학을 타고 九구空공의 올라가니
 空空中중 玉옥簫소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즘을 썬여 바다홀 구버보니
 기피를 모르거니 ㄱ인들 엇디 알리
 ㉕明明月월이 千천山산萬만落낙의 아니 비친 디 업다.

13. <보기>는 윗글의 생략된 다른 부분이다. <보기>와 윗글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梨니花화는 불셔 디고 접동새 슬피 울 제
 洛낙山산 東동畔반으로 義의相상臺臺에 올라 안자
 日日出출을 보리라 밤등만 니러흐니
 祥상雲운이 집피는 동 六육龍龍이 바되논 동
 바다히 썬날 제는 萬만國국이 일위더니
 天던中중의 티쓰니 豪호髮발을 헤리로다.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詩시仙선은 어디 가고 咳히唾타만 나맛느니

- ① 윗글은 <보기>와 달리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윗글은 <보기>와 달리 비교와 대조를 통해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 모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윗글과 <보기> 모두는 대구와 연쇄를 통해 운율감이 나타나고 있다.
- ⑤ 윗글과 <보기> 모두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14. ㉓ ~ 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㉓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 ② ㉔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을 예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㉔ :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㉕ :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㉕ :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1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상의 전개가 ‘현실-꿈-현실’의 순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② 꿈속을 경험하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된다.
- ③ 망양정에서 바라본 파도와 달에 대한 감흥을 노래하고 있다.
- ④ 관리로서의 책임감과 인간 본연의 욕망 사이에서 방향이 심화되고 있다.
- ⑤ 신선의 세계를 동경하는 화자에게 영웅은 이백을, 사선은 네 명의 신라 화랑을 의미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말뚝이 : 쉬이. (춤과 반주 그친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오음 육률(五音六律) 다 버리고 저 버드나무 훌뚜기 뽑아다 붙고 바가지장단 좀 쳐 주오.

양반들 : 아야, 이놈, 뭐야!

말뚝이 :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용두 해금(奚琴), 북, 장고, 피리, 젓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건건드러지게 치라네. (긋거리장단으로 춤을 춘다.)

생원 : 쉬이. (춤과 장단 그친다.) 말뚝아.

말뚝이 : 예에.

생원 :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A]

말뚝이 : 예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日早食)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술질을 살살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메주 밭듯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툼툼이 모래 째째이, 참나무 곁곁이 다 찾아다녀도 썩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중략>

생원 :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예.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쫓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저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왔습니다.

생원 : 야,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자좌오향(子坐午向)에 터를 잡고, 난간 팔자(八)로 오련각(五聯閣)과 입구(口)자로 집을 짓되, 호박 주초(琥珀柱礎)에 산호(珊瑚) 기둥에 비취연목(翡翠椽木)에 금파(金波) 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 짓고 쳐다보니 천판자(天板子)요, 내려다보니 장관방(壯版房)이라. 화문석(花紋席) 찻다 펴고 부벽서(付壁書)를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담박녕정(澹泊寧靜)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중유태화(百忍堂中有泰和)가 완연히 붙어 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충신(孝悌忠信)이 분명하니, 이는 가위 양반의 새처 방이 될 만하고, ㉢문방제구(文房諸具) 불작시면 용장봉장, 궤(櫃) 두지, 자개 함롱(函籠), 반단이, 셋별 같은 놋요강, 놋대야 받쳐요기 놓고,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 놓고,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루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축여 왔습니다.

생원 :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축여 왔다 그리 하였소.

양반들 : (합창) 꿀물에다 축여 왔다네. (긋거리장단에 맞춰 일제히 춤춘다.)

- 「봉산탈춤」 제6 과장 -

16.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발음을 활용한 언어유희로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동일한 음절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으로 상대방에 대해 비꼬고 있다.
- ⑤ 내용을 열거하면서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에서 말뚝이와 양반들 사이의 대화는 일정한 구조를 보인다. 즉, ‘말뚝이의 조롱’으로 시작하여, ‘양반들의 호통’, ‘말뚝이의 변명’, ‘양반들의 안심’이 차례로 이어지는 일정한 재담 구조가 반복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조를 통해 특정 부분에서 인물의 대사, 소재에 담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 ① ㉠와 ㉡는 화를 내는 양반들을 안심시키려고 비현실적인 사물을 꾸며낸 것이다.
- ② ㉠와 ㉢는 상대를 조롱하는 의도를 나타내어 양반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 ③ ㉡와 ㉣는 직전의 대사와 이어지며 양반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 ④ ㉡와 ㉣는 양반들의 안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나열하는 변명의 일부이다.
- ⑤ ㉠와 ㉣는 극명히 대비되어 말뚝이의 변명이 진심이 아님을 드러낸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생원 : 그러면 이번엔 파자(破字)나 하여 보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서방 : (한참 생각하다가) ㉠네에, 거 운고옥편(韻考玉篇)에도 없는 자인데, 그것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蓖麻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생원 : 아, 거 동생 참 용할세.

서방 : 형님, 내가 그럼 한 자 부르라우?

생원 : 부르께.

서방 : 논두렁에 살피 짚고 썩는 자가 무슨 잡니까?

생원 : (한참 생각하다가) 아, 그것 참 어려운 잘세. 그

것은 논임자가 아닌가?

서방 : ㉠하하, 그것 형님 잘 맞았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취발이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서 있다.)

생원 :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예에.

생원 : 나랏돈 노랑돈 칠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 빛 같고,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 ㉡그놈이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람이 비호(飛虎) 같은데, 샌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원 : 오오, 그리하여라. 였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 (종이를 받아 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말뚝이 :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며) 그놈 잡아들였소.

생원 :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 ㉢예, 이놈이 피신(避身)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 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원 :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밀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중략>

말뚝이 : 샌님, 말씀 들으시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빛 하오?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도록 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갈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긋거리장단에 맞추어 일제히 어울려서 한바탕 춤추다가 전원 퇴장한다.)

- 「봉산탈춤」 제6 과장 -

이 작품에서 대상을 풍자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그 중 하나는 사실과 거짓을 섞어 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대의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상대가 자신의 거짓말을 믿게 함으로써 상대의 무지(無知)를 폭로하는 것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영감 : 여보게 할멈. 우리가 오래간만에 천우신조로 이렇게 반갑게 만났으니 얼싸 안고 춤이나 추어 봅세.(노랫조로) 반갑고나 얼러보세. (한참 춤을 추고 있을 때 용산삼개 들머리집이 춤을 추면서 등장한다. 영감은 그녀를 보고 그쪽으로 가서 함께 어우러져서 춤을 추고 있을 때 혼자서 춤을 추고 있던 미얄이 그 모양을 보고 그쪽으로 쫓아가서 씩씩거리자 영감이 어색해져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나온다.) 여보 할멈! 거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아이들 말이나 물어 봅시다. 처음 낳은 그놈은 어떻게 자랐나?

미얄 : 아이구, 말도 많소. 하도 빈곤하기에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려 갔다오. (운다.)

영감 : 뭐가 어찌고 어찌? 오 인체는 자식도 다 죽이고 아무것도 볼 것이 없으니 너하고 나하고 영영 헤어지고 말자.

미얄 : 여보 영감, 오래간만에 만나서 어찌 그런 야속한 말을 하나?

영감 : 듣기 싫다. 자식도 없는데 너와 살 재미가 조금도 없지 않느냐?

미얄 : 이놈의 영감! 헤어지려면 헤어지자! (한편에 서 있는 들머리집을 가리키며) 저렇게 고운 여자를 얻어 두었으니까 나를 미워하는 거지.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이별 하면 같이 이별하지. 야! 너는 나하고 무슨 원수를 저서 이 영감을 이렇게 환장을 시켰느냐? 너 죽이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 (달려들어 들머리집을 때린다.)

들머리집 : (달려들어 같이 때리고 싸운다.)

영감 : (둘을 떼어 놓으며) 용산삼개 들머리집이 무슨 죄가 있다고 때리느냐? 야, 이 더러 운 것아! 구린내 난다. 썩 물러가거라.

미얄 : 오냐! 좋다! 이제는 나도 너 같은 놈하고 살기가 싫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번 세간이나 똑같이 나

18. ㉠ ~ ㉤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뉘 가지고 헤어지자. 어서 나뉘라.

영감 : 오냐, 나뉘 주마 나뉘 줘. 물이 층층 수답이며 아래 찬 밭은 나 가지고, 제비 같은 여종이며 날매 같은 남종일랑 새끼 껴서 나 가지고, 황소 암소 새끼 껴서 나 가지고, 곡식은 하나도 안 되는 저 노리마당 모래밭 띄기는 너 가지고, 숫쥐 암쥐 생쥐까지 너 다 가져라. 그러면 푹 굶어 죽기 알맞을 것이다.

미알 : 이보소, 영감! 어찌 그리 야속한 말을 하나. 조금만 더 갈라 줍소.

<중략>

[A] 영감 : 무슨 잔말이냐? (미알을 발로 차고 마구 때린다.)

미알 : (악을 쓰며 발악하다가 쓰러져 죽는다.)

영감 : (들머리집과 좋아서 웃다가 미알을 보고) 야, 정말로 죽은 것 아니야? 거 윈 성질도 급하기도 해라. 꼭 가랑잎에 불붙기로구나. (미알을 들여다보며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아이고, 아이고, 정말로 죽었구나. 아이고, 아이고. (노랫조로) 세상에는 갖은 영약도 많은데 이렇게 약 한 첩 못 써보고 갑자기 죽는단 말이 웬 말이란 말이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들머리집이 다가와 한참 지켜보다가 영감의 등을 때린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둘은 껴안고 춤을 추면서 퇴장한다.)

남강노인 : 에헴! 에헤 — 엠! 아니, 이것들이 무슨 싹을 하는고? 오래간만에 만나더니 사랑 싸움인가? 동네가 요란하구나. (미알 있는 데로 가서 한참 보고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아이고, 이것이 웬일이냐? 지독하게도 죽었구나. 동네 사람들 이것 보소. 미알 할머니 죽었구려. 아이고, 불쌍하고 가련하여라. 영감을 잃고 갖은 고생을 하더니 그만 죽고 말았구나. 이것을 어쩌나? 옳지! 기왕 죽었으니 죽은 혼이라도 좋은 곳 극락세계 가라고 만신이나 불러 곳이나 하여 줄 수밖에 없다. 만신 부르러 갑네!

- 「봉산탈춤」 제7 과장 -

1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작품에는 조선 후기의 근대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배금주

의(拜金主義)적 가치관의 확산, 합리적인 개인주의, 여성의 권익에 대한 인식, 부당한 권위외식에 대한 저항 정신, 전통적인 성역할 및 가족관계의 변화 등이 이러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장자(長子)·남성 중심의 가족 제도와 혈연 공동체의 결속을 추구하는 경향은 여전히 남아 있던 전근대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① 영감이 첫째 아들의 생사에 큰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서 전통적인 성역할과 가족관계가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 ② 미알이 영감에게 자신이 번 재산을 똑같이 나누기를 요구하는 모습에서 여성의 정당한 권익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는데.
- ③ 미알과 들머리집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는 영감의 모습에서 혈연공동체의 결속을 추구하는 인물의 의도가 나타나는데.
- ④ 영감이 미알과 재산을 배분하는 방식을 예고하는 대사에서 합리적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고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 ⑤ 들머리집이 자신에게 싸움을 거는 미알에게 맞서는 모습에서 부당한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에 대한 저항 정신이 나타나는데.

20. 윗글의 '남강노인'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극 갈래에는 주요 갈등과 큰 관련이 없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들이 아무 의미 없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에서도 '남강노인'은 ㉠관객들의 주의를 환기하며 관객들의 극중 현실에 계속 몰입하도록 유도하고, ㉡방금 극에서 일어난 사건의 결말을 다시 진술하여 확인하고, ㉢과거 인물의 내력에 대해 요약적으로 제시하기도 하면서, ㉣인물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를 제시하며, ㉤극의 내용을 마무리 짓는 등, 마치 서사 갈래의 서술자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원문	夜	矣	卯	乙	抱	遺	去	如
뜻	밤	어조사	토끼	새	안다	보내다	가다	같다(다)
음	야	의	묘	을	포	견(고)	거	여
해석	밤에 몰래 안고 가다.							

교사 : '서동요'에 쓰인 한자가 뜻을 빌렸는지, 음을 빌렸는지 판단하여 위와 같이 해석해보았습니다. 위의 해석을 바탕으로 할 때, ㉠실질형태소인데 한자의 음을 빌린 경우나, ㉡형식형태소인데 한자의 뜻을 빌린 경우의 예를 각각 찾아볼까요?

	㉠	㉡
①	夜	矣
②	卯	如
③	去	遺
④	乙	卯
⑤	如	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문자를 만들려면, 먼저 말의 소리, 즉 음운에 대한 이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 문자 체계의 바탕이 되는 음운 이론을 이미 마련해 놓았다. 그 음운 이론 중 훈민정음의 제자(制字)와 관련한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셋으로 분석하였다. 음절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말을 했을 때, ‘나’, ‘는’, ‘학’, ‘교’, ‘에’, ‘간’, ‘다’가 각각 하나의 음절이 되는 것이다. 우리말의 음절은 ‘나’와 같이 둘로 분석되기도 하고, ‘는’과 같이 셋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에 음절을 셋으로 분석하고 첫소리를 초성, 그다음 소리를 중성, 끝소리를 종성이라 하였다.

둘째, 초성과 중성은 구분하여 따로 글자를 만들었으나 중성을 적는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았다. 초성과 중성이 음운론적으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즉, 초성과 중성은 소리의 특성이 유사하여 따로 중성을 적는 글자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1446년) ‘제자해’ 첫머리에서는 “이제 훈민정음을 지은 것도 처음부터 온갖 지혜를 다 부려 쓰거나 힘써 찾은 것이 아니고, 다만 말소리를 따라 그 이치를 다했음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우리말 연구를

통해 그 말소리에 맞는 문자를 만들어 내었다는 사실을 잘 알려 주고 있다.

(나) 초성을 적는 글자는 모두 17자이다. 초성 글자의 제자 원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기본 글자를 만들었다.

초성 글자는 가장 세지 않은 소리를 적는 글자를 먼저 만들었는데, 이를 초성의 기본 글자라 한다. 이러한 기본 글자는 소리를 낼 때의 발음 기관의 모습을 상형하여 만들었는데, 그것이 ‘ㄱ, ㄴ, ㄷ, ㄱ, ㅇ’의 다섯 글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에서는 “초성은 무릇 17자인데, 아음(牙音)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설음(舌音)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고, 순음(唇音) ‘ㄷ’은 입의 모양을 본떴고, 치음(齒音) ‘ㄱ’은 이의 모양을 본떴고, 후음(喉音)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여 글자들을 만들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상형의 원리로 기본 글자 다섯자를 만들었고 이후 다른 글자들은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만들었다. 이렇게 획을 더하는 원리를 ‘가획(加劃)’이라 한다.

먼저 소리의 세기에 따라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의 아홉 글자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제자해’에서는 “‘ㄱ’은 ‘ㄱ’에 비해서 소리가 좀 세게 나기 때문에 획을 더한다. ‘ㄴ’과 ‘ㄷ’, ‘ㄷ’과 ‘ㅌ’, ‘ㄱ’과 ‘ㅋ’, ‘ㄴ’과 ‘ㄸ’, ‘ㄷ’과 ‘ㅊ’, ‘ㄱ’과 ‘ㅋ’, ‘ㄴ’과 ‘ㄸ’, ‘ㄷ’과 ‘ㅊ’은 그 소리에 따라 획을 더한 뜻이 모두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는 모두 같은 글자에서 변형된 것으로, 모양이 비슷하다. 이는 다른 문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특성이다.

그 밖에 ‘ㅇ’과 ‘ㄹ, ㅍ’을 만들었다. ‘ㅇ, ㄹ, ㅍ’은 비슷하게 발음되는 ‘ㄱ, ㄴ, ㄷ’과 모양을 달리하며 만들었으므로 ‘이체자’라 한다.

중성을 적는 글자는 모두 11자이다. 중성 글자의 제자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늘 [天] 과 땅 [地] 과 사람 [人] 을 상형하여 기본 글자를 만들었다.

중성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소리는 세 가지이다. 이 세 소리를 적기 위해 하늘 [天] 과 땅 [地] 과 사람 [人] 을 상형하여 ‘ㆍ, 一, 丨’의 세 글자를 만들었다. ‘ㆍ, 一, 丨’는 초성 글자처럼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것이 아니다. 중성은 초성과는 달리, 발음할 때 입안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입안 어디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중성 글자는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들 수 없다.

둘째, 기본 글자를 합성하여 다른 글자들을 만들었다.

기본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여덟 글자 ‘ㄱ, ㆁ, ㄷ, ㄴ, ㅈ, ㆁ, ㅊ, ㅋ’는 기본 글자를 합성하여 만들었다.

‘·’가 하나만 쓰인 ‘ㄱ, ㆁ, ㄷ, ㄴ’를 초출자(初出字), 각각의 초출자에 ‘·’가 하나씩 더 붙어 만들어진 ‘ㅈ, ㆁ, ㅊ, ㅋ’를 재출자(再出字)라 한다.

셋째, 중성 11자에는 속하지 않으나 다양한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 합용의 방식으로 ‘과, 꺼, 거꺼’나 ‘니, 헤, 기, 꺼’ 등의 글자를 만들기도 하였다.

(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우리말을 적을 때에는 반드시 초·중·종성 글자를 한데 모아 적고, 거기에 다시 성조(聲調)를 나타내는 방점(傍點)을 글자의 왼쪽에 찍도록 하였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 一, ㄱ, ㆁ, ㅈ, ㆁ” 따위는 초성 아래 붙여 쓰고, ‘ㅣ, ㆁ, ㄴ, ㆁ, ㅋ’ 따위는 초성의 오른쪽에 붙여 쓴다.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해야만 음을 이룬다 [음절 합자].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去聲)이고, 둘이면 상성(上聲)이고, 점이 없으면 평성(平聲)이다. 입성(入聲)은 점을 더하는 것은 같으나 축급하다 [방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훈민정음은 우리말의 초성과 중성을 단위로 하여 만든 음소문자이면서, 글자에 음운 자질까지 반영하고 있는 자질 문자이다. 그 시대로서는 대단히 앞섰던 음운 이론을 근거로 당시의 우리말 소리를 분석하여 만든 대단히 과학적인 문자이다.

(라) 세종宗御製訓民正音

㉠나랏말싸미가통글·국에달아文문자·중·와로서르스름·디 아니홀·씨·이런전·츠·로아·린百·빅·성·이니르·고·저·홍·배·이·셔·도·ㅈ·츄·내·제·쁘·들·시·러·퍼·디·몬·홍·노·미·하·나·라·내·이·를·爲·왕·흥·야·어·엿·비·너·겨·새·로·스·물·여·똥·字·중·를·밍·ㄱ·노·니·사·름·마·다·히·여·수·비·너·겨·날·로·부·메·便·便·安·한·키·흥·고·저·홍·쓰·르·미·나·라

- “훈민정음(訓民正音)”(언해본)에서, 세조(世祖) 5년(1459년)

- ② 중성은 초성과 소리의 특성이 음운론적으로 비슷하여 따로 만들지 않았다.
- ③ 음절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로 하나 이상의 음운으로 이루어진다.
- ④ 훈민정음은 우리말 연구를 통해 그 말소리에 맞는 문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 ⑤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후 음운이론을 마련하여 독자적인 음운이론의 발전을 가져왔다.

23.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초성 중 ‘후음(喉音)’의 소리의 세기는 ‘ㅎ < ㅎ < ㅇ’ 순이다.
- ②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글자는 초성 5글자와 중성 3글자이다.
- ③ 이체자 ‘ㅇ(옛이음), 르, ㄷ’은 기본 글자와 모양은 다르지만 발음은 비슷한 소리들이다.
- ④ 다양한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 기본 글자를 합성하여 ‘ㄱ, ㆁ, ㅈ, ㆁ, ㅊ, ㅋ’ 등을 만들었다.
- ⑤ 중성 ‘ㅈ, ㆁ, ㅊ, ㅋ’는 ‘·’가 두 번 결합된 것으로 초성 ‘ㄷ, ㅍ, ㅈ, ㅊ’를 만든 제자원리와 같다.

24. (나)와 관련하여 (라)의 밑줄 친 ㉠에 속하는 글자들 **로만** 이루어진 단어끼리 묶은 것은?

- | | | |
|-----------|-------|----------|
| ① ㅈ·츄 | ㅈ·츄·내 | 시·러 |
| ② 시·러 | 노·미 | :어엿·비 |
| ③ :어엿·비 | 수·비 | 밍·ㄱ·노·니 |
| ④ 밍·ㄱ·노·니 | 히·여 | 부·메 |
| ⑤ 부·메 | ㅎ·고·저 | 쓰·르·미니·라 |

25. (라)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절합자의 규정에 따라 ‘ㅣ, ㆁ, ㆁ’의 중성은 초성의 오른쪽에 붙여 썼군.
- ②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로 한자음을 중국 원음에 가깝도록 표기하려고 했군.
- ③ ‘나·랏’의 ‘ㅈ’은 현대국어에서 관형격조사 ‘의’와 쓰임이 같군.

22. (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말의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 ④ 현대국어에는 사용되지 않는 합용병서 방식의 초성이 사용되었군.
- ⑤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나’는 평성, ‘·미’는 거성, ‘:말’은 상성을 표시하고 있군.

26. (라)에서 현대어로 바꾸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르 : 당시 문란했던 모음 조화가 현대국어에서 잘 지켜지면서 ‘-’가 ‘-’로 바뀜.
- ② 전츠 : 현대국어로 오면서 사용되지 않아 사어(死語)가 됨.
- ③ ·쁘·들 : 어두자음군 ‘ㅃ’이 된소리 표기로 바뀜.
- ④ 꺾·디 :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ㅣ’ 모음 앞 ‘ㄷ’이 ‘ㅈ’으로 바뀜.
- ⑤ :어엿·비 : 의미가 이동되어 현대국어에서 ‘사랑스럽게’의 뜻으로 해석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世宗宗御製訓民正音

나랏:말싸·미중·국·에달아文·문·字·종·와로서르스·뫼·디아
 니·홀·싸·이런·전·츠·로어·린·百·뵤·뵤·성·이·니르·고·져·홍·배·이·셔·도
 믱·츄·내·제·쁘·들·시·러·퍼·디·뫼·홍·노·미·하·나·라·내·이·를·爲·왕·하·
 야·어·엿·비·나·겨·새·로·스·물·여·뫼·字·종·를·뫼·ᄒ·노·나·사·람·마·다·
 히·여·수·비·나·겨·날·로·뫼·뫼·便·뫼·安·한·키·하·고·져·홍·싸·르·미·나·라

- “훈민정음(訓民正音)”(언해본)에서, 세조(世祖) 5년(1459년)

(나) 밤 꺾던 괴운이 히 되야 츄츄 커가며 큰 정반만 하여
 붉은붉은 번듯번듯 쉼놀며 적식이 윈 바다희 씨치며 몬
 저 붉은 기운이 츄츄 가시며 히 흔들며 쉼놀기 더욱 즈로
 하며 항 꺾고 독 꺾힌 것이 좌우로 쉼놀며 황홀이 번듯여
 낭목이 어즐하며 붉은 기운이 명낭하야 첫 홍식을 헤앗고
 텃뫼의 정반 꺾힌 것이 수레박희 꺾하야 물속으로서 치미
 러 밧치드시 올라 붓호며 항독 꺾힌 괴운이 스러디고 처업
 붉어 것출 빗최던 거스 모혀 소혀터로 드리워 물속의 풍뫼
 싸디는듯 시브더라 일식이 뫼요하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츄츄 가시며 일광이 청낭하니 만고 텃하의 그런 장관은 디
 두할 디 업슬뫼 하더라.

- 의유관북유람일기, 영조 48년(1772년) -

27. (가)~(나) 중 아래의 <보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이어적기란 앞 음절의 종성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등이 이어질 때 소리나는 대로 적는 방법이다.
- ㉡ 끊어 적기란 앞 음절의 종성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등이 이어지더라도 뒤 음절의 초성에 ‘ㅇ’을 표기하여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방법이다.
- ㉢ 거듭 적기란 앞 음절의 종성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등이 이어질 때 앞 음절의 받침을 거듭하여 뒤 음절의 초성으로 적는 방법이다.
- ㉣ 재음소화는 하나의 음소를 두 개의 음소로 쪼개어 표기하는 방식이다.

- | | | | |
|--------------|-----|-----|------|
| ㉠ | ㉡ | ㉢ | ㉣ |
| ① :말싸·미
스 | 기운이 | 붉은 | 거 |
| ② :말싸·미
흔 | 적식이 | 것출 | 꺾 |
| ③ ·노·미 | 물속의 | 것출 | 꺾고 |
| ④ ·노·미 | 적식이 | 쉼놀며 | 꺾하야 |
| ⑤ 뵤·성 | 바다희 | 헤앗고 | 뫼하더라 |

28. (가)와 (나)의 음운 및 표기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뫼’가 사용되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받침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엿이응)’의 7중성법이 적용되었다.
- ③ (가)와 (나) 모두 ‘·(아래 아)’가 표기에 사용되었다.
- ④ (가)와 (나) 모두, 표기상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 ⑤ (가)와 (나) 모두, 입술소리 ‘ㅁ, ㅂ, ㅍ’ 아래 ‘ㄷ’ 대신 ‘-’가 사용되었다.

29. (나)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ㄱ. 작가의 섬세한 필치와 예리한 관찰력이 돋보인다.
- 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가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다.
- ㄷ. 색채어와 감각어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 ㄹ. 대상을 관조적인 태도로 감상하며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

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0. (나)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일치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 ① 밤, 향, 독 ② 향, 징반, 소혀
- ③ 독, 징반, 물결 ④ 징반, 수레박회
- ⑤ 소혀, 일광, 수레박회

정답



- 1) ④
- 2) ③
- 3) ②
- 4) ⑤
- 5) ①
- 6) ①
- 7) ④
- 8) ⑤
- 9) ②
- 10) ⑤
- 11) ①
- 12) ③
- 13) ③
- 14) ⑤
- 15) ④
- 16) ④
- 17) ①
- 18) ④
- 19) ②
- 20) ①
- 21) ②
- 22) ⑤
- 23) ③
- 24) ②
- 25) ④
- 26) ①
- 27) ②

- 28) ②
- 29) ③
- 30) ④